청양담소

마 을 공 동 체 신 문

발행처 :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제보 : cymaeul@naver.com
만든 사람 : 청양군 마을미디어활동가(기자단·영상기획단)
제14호 발행일 : 2024년 4월 22일

제 14 호
2024년 봄호

‘고양이와 벗꽃’

한적한 동네길을 거닐다 마주친 멍 때리는 고양이들의 모습에서, 봄의 여유와 평화로움이 느껴집니다. 따듯해진 봄 햇살을 피해 그늘에서 쉬고 있는 두 마리 고양이는, 사람이 다가온 줄도 모르고 세상 모르게 평온해 보입니다.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무들이 화려한 꽃 옷으로 갈아입으며,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것은 마치 농사일이 시작됨을 알리는 자연의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농번기로 접어들어 제법 소란스러워질 농촌의 한적한 이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 작가 안진환 마을기자 〉

지면안내

1면 고양이와 벗꽃
2면 합천초등학교 학교탐방
3면 매곡1리 소규모 마을축제
4면 아름다운 솟대 마을
5면 푸드플랜 출하농가 인터뷰
6면 마을의 전설, 목면 여우고개 전설, 남천리 동화제(영상)
7면 왜 귀농했는가
8면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소식

학교탐방 : 합천초등학교

합천초등학교를 소개합니다

합천초등학교는 청양군 화성면에 위치한 전형적인 소규모 농촌학교다. 1970년 개교 후 면에 있던 4개 초등학교와 통폐합해 현재는 화성면 유일 초등학교다. 합천초는 2021년에 충남혁신학교로 지정, '사랑으로 꽃피고 꿈이 빛나는 행복 배움터'라는 비전을 세웠다. 따뜻한 어울림 속에서 저마다의 꿈이 반짝반짝 빛나는 학생들로 자랄 수 있도록 배움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가정, 마을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 배움여행

Q 최명숙 교장 선생님의 교육철학은?

코로나19로 교육 현장이 어수선할 때 '합천초 교장'으로 승진한 '코로나 교장'이다.

1982년 서산에 있는 가사초 교사로 시작해 37년간 교직에 몸담고 있다. 교사 시절 학생과 함께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교감시절은 관리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코로나19로 '교육 현장'이 바뀌었다. 온라인교육 시행 초창기 온라인공간이 학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학교의 중요성이 커졌다. 학교라는 곳은 단순히 교과 지식을 나누는 공간이 아닌 가정의 역할이었던 돌봄과 배움, 성장을 공유하는 공간이라 볼 수 있다.

Q 합천초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행복한 교육공동체 문화 만들기

합천초는 학생들이 학교의 참 주인이 되도록 민주적 참여 기회 확대, 학생 주도형 동아리 운영을 통한 자치능력 향상, 수준별 이동형 수업 '수학 오름길'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초학력 향상 등 높은 목표 의식을 갖게 됐다. 또 모든 교직원들은 학생 교육을 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책임감과 열정을 품고 교육의 방향성을 함께한다. 이는 혁신학교라는 열매도 맺게 됐다.

혁신학교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교육을 접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와 학교가 서로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단단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자발적인 행사 및 동아리 참여, 지원으로 가정과 학교가 함께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2022년부터는 AI인공지능교육 이끎학교를 시작으로 4년간의 예술드림학교, 민주시민교육학교 등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 신장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생태환경

2021년부터 화성마을학교가 방과후교육활동을 맡아 학교 업무를 분담,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더욱 집중하게 됐고 학생들의 배움이 깊고 넓어지는 질적 성장을 이뤘다. 방과후학교가 마을로 들어감으로써 마을 전체가 하나의 배움의 터전이 됐다. 마을 인적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학교 밖의 학교가 만들어져 클라이밍, 영어캠프, 진로체험 등의 다채로운 방과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화성지역아동센터가 저녁 및 연중 돌봄 운영으로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 중 60%의 학생들이 하교 후에 마을에서 운영하는 돌봄에 참여하고 있다. 저녁때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제공으로 보호자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합천초를 있게 한 밑거름이라 생각한다.

Q 면 단위 학교 중 올해 신입생 가장 많은 이유와 비결은?

학생 중심의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문화형성이다.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던 가운데 2022년부터 청양읍내 학생들이 전학을 오기 시작했다. 안정되고 행복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가 쌓여 학부모 간 서로 입소문이 나며 지난해 전입학생이 급격히 늘었다.(2021~2023, 29명 전입학, 전교생의 60%)

학부모동아리 독서토론모습

학교 교육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한몫했다. 지난해 10월 '학교 방문의 날', 11월는 '합천초 책 소풍', 청양교육지원청 주관 '온수업축제마당' 실시 등 군내 학부모 대상 공개 수업을 통한 적극적인 학교 홍보를 펼쳤다. 이는 학생 교육에 대한 자부심과 작은 학교 살리기에 뜻을 함께하는 모든 교직원의 열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Q 인구감소, 면단위 작은 학교 유지 방안은?

학령인구가 자연 감소하면서 면단위 작은 학교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학교별 특색교육과정으로 학생과 학부모 선택의 폭을 넓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의 주인이 되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해 학교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쌓게 되면 농촌유학 등 관외에서도 학생들이 유입될 것이다.

해당 기사는 2024년 4월 1일 최명숙 교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질의 응답식으로 정리했습니다.

〈 서종필 마을기자 〉

제호이야기 청양담소

청양담소는 웃으며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청양을 담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양의 이야기를 담았소'의 줄인 말로 청양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신문, 주민의 소리를 담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신문으로 마을미디어활동가가 만들어갑니다.

청양담소는 계간지로 2024년 04월 봄호, 07월 여름호, 09월 가을호, 11월 겨울호로 발행합니다.

마을기자단이 만드는 청양담소는 주민들의 기고도 받고 있으니 메일(cymaeul@naver.com)또는 전화(041-943-991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축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이여~!’

남양면 매곡1리 소규모 마을축제를 다녀오다

지난 3월 25일 월요일 남양면 매곡 1리 마을회관에서 소규모 마을축제가 진행됐다. 남양면 매곡1리는 2023년 농촌현장포럼을 완료하고 2024년 삼삼오오로 강사를 초빙해 마을의 전통주와 두부 레시피를 배우고 정량화시켰다.

이날 매곡1리 소규모 마을축제는 증류주와 전통주, 두부를 활용한 요리를 나눠 먹는 자리였다.

매곡1리는 모든 집집이 두부를 만들어도 명품 두부라고 한다.

매곡1리 장만호 이장은 “4년 전 귀촌했을 당시, 부녀회장님이 명절에 두부를 나눠 주셨는데 제사상에 올리기도 전에 두부가 너무 맛있어 딸과 둘이서 두부를 그 자리에서 다 먹었다”라며 매곡1리 두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마을의 전통과 이야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듯이 마을의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마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인데, 마을의 전통과 이야기를 계승할 인구들은 점점 소멸해 가는 실정이다.

매곡1리는 마을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주민들의 음식 솜씨를 살려 구두로 전해져오는 두부와 전통주를 정량화된 레시피로 정리해 마을의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그전까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의 단합을 다지고 즐기자는 취지의 마을축제였다면 이번 축제는 손님을 초대해 우리 마을의 두부와 전통주를 소개하고 같이 즐기자는 취지로 개최됐다고 한다.

아침부터 두부를 만들었을 부녀회장님과 부녀회원님들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마을 주민과 손님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다. 두부 강정, 두부김치 등 두부를 활용한 근사한 한 상이 차려졌다. 거기에 매곡1리에서 직접 담근 전통주까지 함께하니 자리는 제법 후끈하게 달아올랐다. 주민과 초대한 손님들이 하나, 둘 회관으로 모이고 본격적으로 소규모 마을축제가 시작되었다. 전통주를 서로 건네는 술잔에는 이웃에게 전하는 만수무강과 정이 넘실거렸다.

남양면 매곡1리 박일용 추진위원장은 “마을 주민 대다수가 평생 농사일을 했기 때문에 손목과 허리 등 몸이 아프셔도 결국 농사일을 계속하시더라”라며 “밭에서 적게 일하고, 대신 우리가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활용해 두부도 만들고 전통주도 만들어 판매까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 주고 싶었다”고 마을축제의 취지와 목적을 밝혔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이여~!’ 호쾌한 말들이 오가는 매곡1리 소규모 마을축제의 밤은 그렇게 무르익어 갔다. 매곡1리 주민들이 함께 일궈나가는 마을축제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 강다솔 주임 〉

아름다운 솟대 마을 개곡리
김병찬 씨 이야기

무엇을 기원하는 걸까?

예전, 마을에서는 장승과 함께 솟대를 만들었다. 풍년을 기원하고, 마을의 안녕과 평온함을 비는 한 해의 시작이었다. 어느 때부터인가 젊은이들이 떠난 마을은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도 사라졌다. 마을 공동체는 주민들이 함께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져간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하면 좋겠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공동체이다. 마을에 사람이 없는 것이다.

솟대는 [솟을 대]의 줄인 말로써 장대와 새로 이루어졌다. 장대는 긴 나무막대를 말하고, 솟대의 새는 기러기, 갈매기, 오리 모양으로 표현한다. 보통 한 장대에 한 마리를 만드는데, 여러 마리를 올려 놓는 경우도 있다. 새는 "하늘과 사람의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역할자" 라는 뜻으로 하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 지역에 따라 만드는 방법에 차이가 있고, 요즘은 민속적 방법과 예술적 기능을 더해 작품이 다양하다.

솟대 만들기

솟대 50개 넘게 만들었다. 시간 날 때마다 적당한 나무를 고르기 위해 앞산, 뒷산을 누비었다. 재료는 밤나무 가지치기를 한 나무를 사용하기도 하고, 참나무, 소나무를 이용하였다. 비닐하우스 농장이 겨우내 작업장이 되었다. 나무껍질을 벗긴다. 솟대가 될 적당한 모양으로 다듬고, 새 모양을 만든다. 때로는 자연 그대로 것을 사용했다. 나무뿌리와 가지를 이용하여 여러 모양의 새를 만들었다. 그래도 같은 모양은 하나도 없다. 솟대는 빗물에 썩지 않도록 방수제를 칠했다.

겨울방학 내내 김병찬 씨는 혼자 솟대를 만들었다. 만들면서 손을 다치기도 하고, 산에서 넘어지기도 했다. 만드는 내내 그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었던 것일까?. 나 홀로 산사로 향하는 노승처럼, 발걸음이 산으로 향했을 그 모습이 그려진다. 솟대를 파는 힘겨움 그래서 그의 거칠어진 손에는 산을 헤매던 발걸음, 나무를 어루만지던 손길, 기원의 마음이 투박하게 남아 있다. 촌노의 손은 이렇게 질곡의 역사를 담고 있나 보다.

솟대 심기

정월(음력 1월)에 '솟대를 심어야 한다'며 사람을 모았다. 여러 카톡방에 번개를 쳐서 15명이 모였다. 기원하는 마음을 모으려면 여럿이 함께해야 한다. 청양을 중심으로 대전, 홍성, 부여에서 소식을 듣고 모였다. 저마다 희망하는 내용이 다르고, 원하는 범위와 방향도 다르다. 그러나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누군가를, 어느 곳에서는, 무엇이든 간에 기원은 희망적이라는 사실이다. 아름다운 기도가 모이는 날이다.

솟대를 어깨에 두 개씩 둘러매고 마을 어귀 언덕배기로 향했다. 이미 마을과 협의해 둔 장소에 도착했다. 마을 입구는 산 능선을 돌아서는 모퉁이이다. 이곳에서 멀리 청양의 상징 칠갑산 정상이 곧바로 보인다. 저마다 '경치가 일품'이라며 한마디씩 거들었다. 솟대를 심기 딱 좋은 위치이다. 먼저 쇠꼬챙이로 구멍을 뚫었다. 그다음 구멍을 넓히고 솟대를 집어넣고 발로 밟아 다진다. 행여 쓰러질까, 잔자갈을 쑤셔 넣고 힘껏 밟았다. 구부러진 길을 내려가며 곳곳에 솟대를 심었다. 저마다 기원하는 마음도 함께 심었다.

참가자 김영희 씨는 "마을에서 솟대를 심는 행사가 없어진 것이 오래되었는데, 개인이 전통을 고수하고 이어 나가기 위해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에 깊이 감명받았어요"라고 말했다.

한편, 솟대 만들기 행사를 주관한 김병찬 씨는 "산골짜기 우리 마을을 찾아 주시어 정말 고맙다. 많은 사람이 함께하니 솟대 심기가 한결 쉬웠고 재미도 있었다. 그분들이 기원하는 것과 우리 마을의 안녕도 풍요롭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마을의 솟대가 풍성하게 심어진 것을 본 마을 어르신들은 반기며 즐거워했다. 한 노인께서는 "우리 동네가 예술인 마을 같혀"라며 말했다. 아름다운 '개곡리' 솟대마을이 다르게 느껴진다.

앞으로 솟대 주변에 키 낮은 꽃과 나무를 심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후 솟대 만들고 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도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김병찬 씨는 말했다.

〈 전귀정 마을기자 〉

푸드플랜 출하농가소개

인터뷰 - 김금자 농가

마을 주민에게 건네는 '따뜻한 녹색 손길'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로컬푸드 매장에 산채나물을 납품하고 있는 대치면 시전리에 사는 김금자입니다.

Q. 원래 청양분이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청양에서 살게 되셨나요?

A. 태어난 곳은 충남 부여이고 서울과 수원에서 한 35년 정도 살다가 남편 고향이 청양이라 13년 전쯤 청양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Q. 그럼 농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원래는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그쪽으로 일하려고 했는데 청양으로 내려오면서 조금 어렵게 되었어요. 청양에 정착하면서 농가주택을 임대해서 들어갔는데, 그 집 임대 조건에 남는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가꿔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물을 심어봤는데, 뭐를 심고 가꾸는 것이 재미있더군요. 그래서 하다 보니 이게 점점 불어났지요. 이 불어난 농산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푸드 플랜이 생겨 조금씩 팔아봤어요

Q. 그렇다면 푸드플랜 초장기 멤버시겠네요? 주로 어떤 품목을 납품하시나요?

A. 네. 초창기부터 같이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군청 앞마당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그랬는데 규모가 점점 커지더니 직매장도 생기더군요. 그걸 다 함께 한 거죠. 저는 주로 곤드레를 비롯해 고사리, 취나물 등 산나물을 납품해요.

Q. 산나물.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남들이 하는 데로 고구마, 옥수수, 고추 같은 걸 심었어요. 그런데 산짐승들한테 다 뺐겼죠. 고구마는 하나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산이라 일조량도 적고 산짐승 피해도 발생해 좀 다르게 접근해야겠다 싶어 고민하고 찾아보니 산나물이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원도까지 가서 곤드레 씨를 사와 도라지와 함께 심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자라더라구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고 산나물로 종목을 정하게 되었지요. 또 산나물은 한번 심어놓으면 2~3년은 다시 파종을 안 해도 되거든요.

Q. 그렇다면 푸드플랜을 처음부터 같이 하신 멤버로서 청양군의 푸드플랜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우리 농업인의 입장으로 보면 너무 잘 되어있죠. 청양이 푸드플랜을 잘하고 있다고 다른 지역에도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구요. 특히 담당 직원이 너무 이뻐요. 너무 잘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나긋나긋하게 너무 잘해줘서 이제 말 안 해도 잘 알고 뭐 부탁해도 잘 들어줘요. 그런데 조금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어요. 다들 한 가지 종목이 좀 괜찮다 싶으면 거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서 겹치지 않도록 교육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거 말고는 그냥 칭찬만 해도 모자라요.

Q.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신가요?

A. 지금 명확한 계획은 없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걸 계속해도 괜찮을지 고민인데 명확한 답은 없어요. 그냥 마을 어르신들은 판매 경로를 잘 모르다 보니 제가 중간에서 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오면 가져다 팔아주고 그러지요 그냥 우선은 그렇게 중간에서 도와드리고 납품하고 그러면서 고민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 아니에요. 기사 작성 잘 부탁해요!

〈 서한빈 사원 〉

시간이란 과연 무엇일까?

〈 김남선 마을기자 〉

시간은 물과 같고
시간은 봄비와 같고
시간은 백발과 같고
시간은 소리와 같고
시간은 눈물과 같고
시간은 음악과 같고
시간은 바로 좋은 술이다.

그래서
시간은
나에겐 세월이고
또
바로잡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있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독자기고

목면 여우고개의 전설 (上)

임동민 _ 목면주민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에는 동서로 관통하는 36번 국도 안심리와 송암리 사이에 여우고개라 부르는 고개가 있다. 옛날에는 신작로(新作路)와 신로(小路)가 이 고개에서 합쳐지고, 고갯마루에는 큰 참나무가 무성했으며 서낭(城隍)도 있어 좀 으스스한 고개였다고 알려졌는데 이곳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송암리 북쪽 양달진 곳(솔안)에 착실한 홀아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부모의 얼굴도 모르는 고아였으나 장성해서는 남의 집 머슴으로 착실하게 살았다. 다행히도 주인이 후덕해 새경과 옷도 몇 벌씩 해주어 불편 없이 살아갔다. 일 년에 한 번씩 받은 새경은 도로 주인에게 맡겨서 이자를 부쳐 받기로 하여 몇 년만 있으면 독립해서 집과 전답도 장만할 만했다.

그럭저럭 오 년이 지나자 하루는 주인이 부르더니 이젠 머슴살이를 그만두고 나가서 살면 어떠냐고 했다. 아직 독립해서 살만한 돈은 없지만, 주인이 논을 소작으로 주기로 해서 송암리 북쪽 양지바른 곳에 나무를 베어다 우선 방 한 칸을 짓고 살림을 시작했다. 살림이래야 혼자 사는 신세이므로, 아침에 밥을 싸서 들에 나갔다가 점심을 먹고 저녁에 와서 자는 그런 생활이었다.

하루는 할 일도 없고 해서 생전 처음 장터에 나가봤다. 장터에는 사람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았다. 그러나 늙어서 고생을 면하려면 먹고 싶은 것을 모두 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굴비 한 마리만 사서 새끼에 매달아 들고 장터에서 나오려고 할 때 머슴살이할 때의 친구 김가를 만나서 같이 주막으로 들어갔다. 술을 억세게 좋아하는 김가는 그에게 술을 자꾸 권하므로 오랜만에 그도 술을 실컷 마셨더니 취해서 거동을 못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집에 꼭 가야겠기에 주막을 나서보니 벌써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다. 김가와는 가는 방향이 다르므로 길거리에서 헤어지고 혼자서 굴비 한 마리를 들고 비틀걸음으로 돌아오다 그만 고개 밑에서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늦은 밤이라 행인도 없고 길 가운데 쓰러진 채로 코를 드르렁거리며 자고 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살며시 흔드는 기척이 있어 눈을 떠보니 자기 곁에 갑사 치마저고리를 입은 색시가 수줍어하면서 앉아 있었다.

그는 놀라며 벌떡 일어나서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더니 "길을 잃은 사람이옵니다. 집도 없으니 저를 데려가 주시오"라고 말하며 얼굴을 돌리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홀아비로 살아온 그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날 밤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기를 맹세하고 잠자리를 같이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색시는 새벽에 그가 눈을 떠보니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그래서 "왜 울고 있느냐?"고 물으니 "아무리 집도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집에 가서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 와야겠습니다"하고 훌쩍거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어디에 사느냐?"하고 물었더니 남의 집에서 방 한 칸 얻어서 산다는 것이었다. 그럼 나도 같이 가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이 아니냐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직 그럴 것 없으니 인사는 다음에 하면 된다고 말해서 그럼 다녀오라고 했다. 색시는 고맙다며 집을 나가면서 될 수 있으면 일찍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여름호에서 계속〉

영상으로 만나는 '청양담소'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에 정월대보름 행사가 휘엉청 밝은 달 아래 펼쳐 졌다. 보름달 아래 제각각의 소원과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며 달집을 태웠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촬영을 해봤다. 행사의 모든 과정은 한 두 사람의 힘으로만 준비 할 수 없고, 주민들의 힘을 합쳐서 준비해야 가능한 작업들이었다. 커다란 달집은 달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습이었고 불이 활활 타오를 땐 안 좋은 기운들은 활활 타고 좋은 기운들이 와서 올 한해를 무탈하게 잘 보낼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을사람들은 점점 힘이 들어서 이 행사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곤 하지만 또 막상 이 행사를 준비 할 때면 힘이 난다고 하신다. "영차! 영차!" 구령에 맞춰서 달집을 만들고 "타닥-타닥-" 소리가 나면서 달집이 타는 장면은 나의 카메라속 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도 저장이 완료 되었다.

독자기고

귀농의 삶은 나를 성장시켰다

박일용 _ 남양면 주민

귀농 현실의 삶을 극복하는 힘

귀농 그 이유에 대해

청양군 남양면 매곡리에 전입 신고한 지 만3년이 지나 4년 차에 접어들었다. 2020년 9월쯤 우리 가정에 터전을 잡을 땅을 매입하면서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다. 나는 작은 산란계 양계장을 건축해 생태와 교육이 있는 농장을 운영하고 싶었다. 축사를 건축해 닭을 키운다는 것은 시골에서 혐오시설로 분류하기에 걱정이 만만치 않았다. 동시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젠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다행히도 두려움의 문제는 마을 주민들께서 넉넉히 받아주셔서 곧 허상이었음을 알았다. 물론 민원을 직면하는 시기도 있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리 힘들어하지 않아도 됐을 문제들이었는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든다.

진짜 문제는 노동의 강도였다. 평생 책상 앞에서,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살아왔던 내가 이젠 대부분 몸만 쓰는 일을 하니 견뎌내기가 힘들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날 없이 계속 일만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농장이 아니어서 마음이 참 힘들었다. 나는 넓은 방사장에 닭들이 자유로이 돌아다니는 것을 상상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닭들의 부드러운 깃털을 쓰다듬어 주며 교감하고, 막 나온 달걀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농장을 만들고 싶었다. 닭들이 우리 인간과 생태계에 참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농장 운영을 완성하길 희망했다. 하지만 일장춘몽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청양은 방사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이었다.

청양군 조례에 따라 방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른 지역을 알아봤을 것이다. 근간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나에겐 퇴로는 없었기에 정면 돌파의 자세로 앞만 보고 가야 했다. 전진 앞으로 할 수 있었던 힘은 내가 왜 귀농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환기하는 것뿐이었다. 귀농을 선택한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었고,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기에 그렇다. 귀농의 이유를 성찰해가면서 살아서 그런지 3년이 지난 지금 적절한 요령도 생겼다. 또한 농장 운영을 나름 안정적으로 운영할 힘도 생겼다. 그렇기에 청양군 특히 매곡리에 귀농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귀농의 결정적 이유

나에게 어울리는 존중이 있는 삶을 선택하다

고대 근동의 지혜자들 중 어떤 이들은 인간에 대해 "신은 사람을 신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의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한다.

'사람을 신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는 신의 대행자로서의 인간을 의미한다고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다. 주체로서 인간을 주장한 데카르트에 익숙한 나로서는 어색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자가 보는 인간의 정체성은 나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고 끝내 나는 설득당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존재로 여기며 살려고 노력하는 나를 발견했다.

문제는 나의 선택에 있었다. 내가 선택한 삶의 환경, 그것은 또 다른 나이기도 했다. 아파트 그것은 정체성의 치열한 싸움터이기도 했다. 아파트를 단순히 삶의 주거지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부와 성공 혹은 정체성으로 아파트를 바라본다면 열등감의 연속이 된다. 우리나라 메이저 건축회사들은 차별성을 위해 아파트의 고급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편리한 생활 공간, 청결함 등을 설득력 있게 광고한다. 동시에 은근히 입주자들의 사회적 위치와 아파트를 동일시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이런 문화에 나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고급화된 아파트에 살면서 나름 어깨에 힘이 들어간 사람들과 모임을 하면 어느새 위축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소심해지는 내 마음을 발견하는 순간 감정적으로 힘들어졌다. 또한 내가 매일 이용하는 생활 문화도 나를 고민하게 했다. 차로 시내를 이동할 때,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창문을 내리다가도 매연때문에 바로 올리곤 했다. 생활필수품이나 옷가지 등을 구입할 때도 비슷했다. 나는 산본역에 있는 뉴코아 매장에서 옷이나 장을 보곤 했다. 몇 분 간격으로 소음과 진동이 온몸에 전달된다. 4호선 전철역이 지나가기에 발생되는 공명이자 진동이었다. 전철이 지나가면서 일으키는 진동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건축했다 하더라도 이런 여건들은 나를 답답하게 했다.

마지막으론 내가 운영하는 학원이 싫었다. 학원에서 수익을 내려면 부모의 불안심리와 욕망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공부해선 경쟁에서 뒤지다가 지방에 있는 이름 모를 사립대에 진학하게 된다.', '그래서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수업을 신청해야 한다.'를 잘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좀 더 차원이 높은 경우는 부모의 욕망을 건드리는 것이다. 부모와 몇 마디 나누다 보면 결론이 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학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학력에 있어 실패자로 열등감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말이다. 전자의 부모는 공부 방법을 말하면 지갑을 열고, 후자의 경우는 자녀의 성적을 결과로 내면 기꺼이 "원장님, 원장님!!!" 한다. 공부하는 주체로서 아이의 정체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그냥 원장의 수익과 부모의 불안과 욕망만이 있을 뿐이다. 아이의 정체성을 아무리 주창해도 소귀에 경 읽기다.

이러한 일상과 문화는 나의 정체성에 안정을 줄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의 정체성은 내가 살아가는 도시의 문명을 극복하기엔 힘이 약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 정체성의 나와 적절히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공부를 좀 했고, 시장조사도 했다. 자연스럽게 자연과 생태계의 세계로 들어갔다. 다시 고대 지혜자의 정체성을 생각해봤다. 내가 자연의 순리와 어울리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어떨까? '적절해 보여!'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닭들에게 초점을 두었다. 닭들의 생리에 맞게 환경을 만들고, 닭들이 낳은 알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또한 이러한 나의 삶을 다음 세대와 소통을 할 수 있다면, 도시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정체성의 영역에 조금씩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지혜자가 제안한 정체성으로 청양에서 살아가는 것

앞서 말했듯이, 귀농 초창기에는 적응의 문제와 후회의 감정이 뒤섞여 힘든 시기를 보냈다. 정체성에 대한 성찰과 그에 어울리는 삶으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나의 투쟁은 안정적 농장 운영이라는 선물을 얻었다. 여유가 좀 생겼다. 닭들이 사람과 자연에 주는 유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무엇인 모색 중이다. 또한 학원과 게임에만 몰두해 있는 도시 아이들에게 농장을 통해 또 다른 일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 좀 더 확장해서 도시 문명에 젖어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법을 공유하고 싶다. 요즘 나의 일상은 선택에 대한 선물인지 모르겠다. 요즘 차를 타고 오갈 때 4계절의 공기가 주는 색다름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하다. 내가 사는 주거지는 더 이상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어서 좋다. 나에게 불쾌감을 주는 소음과 진동 대신 새소리와 아내의 재잘거림이 행복을 준다.

Cheongyang Community Foundation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마을만들기팀
문의: 041-943-9911

청양이음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24년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청양이음 3월 회의를 지난 3월 14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8개 분야(마을만들기, 돌봄, 교육, 평생학습, 청년 등) 총 29개 조직 중 16명이 참여했다. 청양이음은 관내 민간조직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협력하여 정책을 융복합하고 연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은 24년 첫 청양이음 회의로 상호인사와 청양이음에 대한 소개 및 연도별 연대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21년부터 추진한 연대회의를 23년에는 확대추진하여 관내 중간지원조직이 함께 모였으며 이를 통해 청양지역자활센터 다회용기 세척사업과 지역행사를 연계했으며 평생학습관의 학습 그루터기 공간대여 사업에 혁신플랫폼 와유 및 청소년문화의 집을 등록하는 연계협력 결과를 얻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마을만들기협의회 김승룡 회장은 "작은 조직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문제해결의 힘도 강해집니다"며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단체와 상호교류를 통해 청양군을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양이음은 농촌마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해야 하고, 행정과 민관협치를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면 민간단체의 강력한 네트워크 조직이 필요하여 조직되었다.

Cheongyang Community Foundation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사회적경제팀
문의: 041-943-9913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글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4년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3월 1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모집하고 있다.

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9개소를 선정하여 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박람회 참가시 발생되는 부스 임차료나 상품 또는 기업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하며, 규모는 기업당 최대 200만원이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내외 제품 홍보 기회를 마련하여 판로 확대 및 기업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눈개승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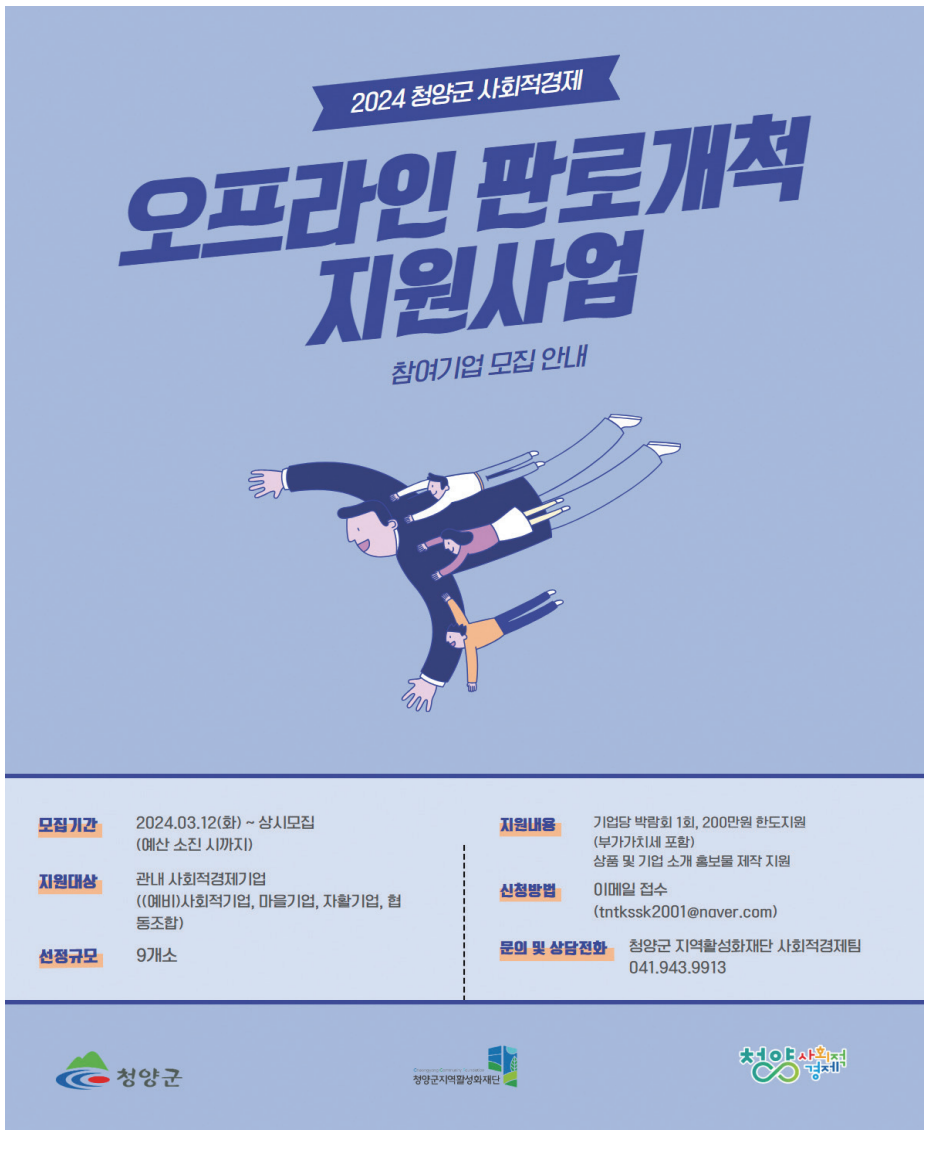
이른 봄 어린 순을 채취해서 먹는 나물로 약 2주 정도의 짧은 수확기간으로 시기를 놓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고급산채입니다.

눈개승마 손질하기
싱싱한 눈개승마는 손질 할 게 없어요~
밑둥 부분만 조금 잘라내어 주고 식초 푼 물에 살살 흔들어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냄비에 적당량 물을 끓여주고 소금을 반스푼정도 넣어줍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줄기 쪽 먼저 10~20초 정도 데쳐 준 뒤 전체를 넣어서 추가로 데쳐줍니다. (나물 상태와 두께에 따라 데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눈개승마 나물무침
데친 눈개승마 2줌, 고추장 1큰술, 된장 1/4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마늘 1/2큰술, 매실청 1큰술, 참기름 1클술, 깨소금 1큰술, 식초는 취향에 따라 넣으셔도 됩니다.

눈개승마 장아찌
데친 눈개승마에물기를 짜주고 장아찌간장(간장:물:설탕:식초 = 1:1:0.7:0.7)을 끓여서 식혀준 뒤 물기를 뺀 눈개승마에 부어주세요. 냉장고에 넣어 둔 뒤 다음 날부터 꺼내 드시면 됩니다.

눈개승마 숙회

<초장만들기>
고추장 1T, 고춧가루 1t, 참기름 1T, 사과식초2T, 설탕 0.5T, 간마늘1t, 깨소금 1t

데친 눈개승마를 초장에 찍어 먹으면 고기맛, 인삼맛, 두릅 맛 세 가지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